

‘대중가요’로 묵상하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 사도가 답합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참조 마태 16,16) 언젠가 마르타도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요한 11,27)라고 신앙고백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있어서 주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1. 신학생 시절부터 이를 묵상하면 떠오르는 좋아하는 노래, 송창식의 [사랑이야입니다].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내 마음 깊은 거기에 찾아와, 어느새 촛불 하나 이렇게 밝혀 놓으셨나요. 어느 별 어느 하늘이 이렇게 당신이 피워놓으신 불처럼, 밤이면 밤마다 이렇게 타오를 수 있나요. 언젠가 어느 곳에선가 한 번은 본 듯한 얼굴, 가슴 속에 항상 혼자 그려보던 그 모습, 단 한 번 눈길에 터져버린 내 영혼, 사랑이야 사랑이야 음--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내 마음 깊은 거기에 찾아와, 어느새 시냇물 하나 이렇게 흘러 놓으셨나요. 어느 빛 어느 바람이 이렇게 당신이 흘러 놓으신 물처럼, 조용히 속삭이듯 이렇게 영원할 수 있나요. 언젠가 어느 곳에선가 한 번은 울 것 같은 순간, 가슴 속에 항상 혼자 예감하던 그 순간, 단 한 번 눈길에 부서진 내 영혼, 사랑이야 사랑이야 음--” 나에게 있어서 주님은 나에게 오시어 나를 송두리째 빼앗아 가신 분, 그래서 성소자의 길을 걷게 만드신 분이시다.

2.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면서 매일을 살고 싶다. 내가 잘 부르고 있는 노래, 혜은이의 [당신은 모르실거야]. “당신은 모르실거야, 얼마나 사랑했는지, 세월이 흘러가면은 그때서 뉘우칠거야. 마음이 서글플 때나, 초라해 보일 때에는 이름을 불러주세요. 나 거기 서 있을게요. 두 눈에 넘쳐 흐르는 뜨거운 나의 눈물로 당신의 아픈 마음을 깨끗이 씻어드릴게. 당신은 모르실거야 얼마나 사모했는지 뒤돌아 봐 주세요. 당신의 사랑은 나요. 두 눈에 넘쳐 흐르는 뜨거운 나의 눈물로 당신의 아픈 마음을 깨끗이 씻어드릴게. 음. 당신은 모르실거야, 얼마나 사랑했는지 뒤돌아 봐 주세요. 당신의 사랑은 나요. 당신의 사랑은 나요.” 주님, 저는 정말 당신을 사랑하고, 희망하고, 믿습니다.

3. 나에게 있어서 주님은 절대적인 슈퍼 ‘갭’이시고, 그분에게 있어서 나는 영원한 ‘을’이다. 그래도 좋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마태 11,29)하시어 그분께서 하시는 ‘갭’질은 언제나 “편안한 멍에와 가벼운 짐”(참조 마태 11,30)이기 때문이다.



박영진 베드로 신부 | 남지분당 주임



제 1 독 서 이사 22,19-23
 화 답 송 © 주님, 당신 자애 영원하시니, 손수 빛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제 2 독 서 로마 11,33-36
 복 음 마태 16,13-20

주일 진례

사라져 가는 것들에 관해서

이원구 F. 사베리오 소설가/ 가톨릭 문인회

어머니는 7년 전 늦은 여름에 돌아가셨다. 꿈도 현실도 아닌 것 같은 상황에서 서둘러 짐을 챙기고 두 살짜리 작은애와 어린이집에 가 있던 큰아이를 찾아서 차에 태웠다. 시골집에 도착했을 때는 해거름녘이었다. 마당을 쓸고 골목을 쓸고 마루를 대충 청소하고 나니 금세 어두워졌다. 거의 열시가 넘어서 누나들이 도착했다. 그들은 한차례 엄마를 목 놓아 부르더니 수의를 챙겼고 서둘러 장례식장으로 떠났다.

이튿날, 관할 지서에 들러 어머니 사망에 관한 서류들을 발급받을 때까지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이미 화환이 입구까지 늘어서 있었다. 영정사진 속의 모습에서 어머니의 고단했던 삶의 이면들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같았다. 장례식장을 찾는 사람들이 이어지자 큰누나가 넌지시 말했다. 나를 보고 찾아오는 손님이 오거든 나오고 아니면 그냥 방에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장애가 있는 내가 그들 눈에 부끄러웠는지 아니면 당시 중앙부처에 고위 공무원으로 있던 둘째 형 체면이 깎일 것 같아서 그랬는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이었다. 오후에 입관식이 있었다. 열여덟 나이에 재 넘어 산마을에서 시집와 누나들을 낳고 형들을 낳고 나를 낳아 길렀던 어머니는 수의를 입고 관 속에 누워 있었다. 죽음이란 게 남겨진 이들에게나 슬픈 것이지 정작 어머니는 깊은 잠속에 빠진 것처럼 편안해 보였다.

아침에 운구차가 성당으로 간다는 말을 듣고 나는 아이들과 아내와 함께 시골집으로 갔다. 어머니가 쓰러져 돌아가신 욕실 구석구석을 청소할 때 비로소 울음이 터졌다. 장지는 아버지 산소 옆이었다. 어머니가 다녔던 성당의 사목회장이 간단한 성서를 읽었고 성수를 뿌렸다. 관이 내려지고 제각기 삽에 흙을 떠서 뿌렸다.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간다고 했던 러시아 시인의 시처럼 아버지의 죽음도 어머니의 죽음도 바람처럼 지나갔다. 햇살이 따뜻했던 봄날 아버지 무덤가에서 어머니와 두런두런 나눴던 이야기, 초등학교 3학년 여름 심한 열병으로 의식이 없던 내가 어머니의 등에 업혀 병원으로 가던 중 잠깐씩 눈을 뜨고 어머니의 땀 냄새를 맡았던 기억, 가을 코스모스가 곱게 핀 찾길을 따라 어머니와 걸었던 내 마지막 초등학교 운동회, 이 모든 것들을 추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살아오면서 늘 마음 아프고 슬펐던 기억들만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나뿐일까?

“저렇게 예쁜 새끼들 낳고 네 힘으로 살아가는 거 본께네 엄마는 인자 죽어도 편히 눈을 감겠다.”

어머니는 그렇게 떠나셨다.

한국 평협 본당 대항 모바일 복음 쓰기 대회 시상식



교구 평협(총회장 백균철 바오로)은 지난 7월 31일 교구청 총대리(최봉원 야고보 신부) 집무실에서 한국 평협 본당 대항 모바일 복음 쓰기 대회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한국 평협에서 주관하는 본당 대항 모바일 복음 쓰기 대회는 본당 공동체 안에서 서로 마음을 모아 말씀을 읽고, 쓰고, 새기며 흠어진 공동체를 회복하고 '코로나19'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응원의 취지로 마련되었다. 이번 대회는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40일간)로 마감하여, 전국 1,186개 본당에서 총 14,753명이 참여하였다. 교구에서는 38개 본당이 참여하였으며, 전체 특별상은 생림선교본당, 교구 1위는 삼천포본당, 교구 특별상에는 칠원본당이 수상하였다.

신학생 하계연수



교구 신학생 하계연수가 8월 3일부터 4일까지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있었다. 이번 연수는 '그대들과 함께, 하느님과 함께'라는 주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학생의 삶과 사제의 삶을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연수 중 교구 '길벗 사제단'이 교육관을 방문하여 신학생들과 함께 친교의 시간을 보냈다. 신학생들은 이번 연수를 통해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더욱 진지하게 바라보고, 성소를 굳건히 하는 기회가 되었다.

미사 통상문 해설

『미사 통상문 해설』은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과 여러 교회 문헌에서 제시하는 미사의 각 부분에 대한 이해와 예식 규범, 그리고 사목적 판단에 따른 한국 천주교회의 적용 등을 「미사 통상문」과 함께 수록하여, 미사에 참여하는 신자들뿐 아니라 사제들도 교도권에서 제시하는 미사의 각 부분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발행: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신학생이란 이름을 걸고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영화, 안시성, 2017

양만춘, 그가 어떤 인물이라는 건 알고 있겠지? / 한때는, 젊은 나이에 많은 전투에서 승리한 전장의 영웅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역자라 불리고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 너를 부른 것은 그 때문이다. 안시성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너를 태학 생도의 수장으로 임명한 것은, 네가 양만춘과는 달리, 나에게 충성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사물, 안시성으로 가라. 안시성으로 들어가 양만춘을 죽여라. 어차피 안시성으로 당군을 상대할 수 없어. 그보다 더 큰 성들도 이세민을 당해내지 못했다. 안시성은 버린다. 성민들, 양만춘을 따르는 한, 그들도 반역자다. / 이 목숨을 바쳐서라도 반드시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역사를 바탕으로 했지만 영화 속 이야기입니다. 양만춘은 고구려 안시성의 성주이자 장수입니다. 그런 그에게 반역자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안시성 출신으로 태학 생도의 수장인 사물은, 연개소문의 명을 받아 반역자 양만춘을 죽이러 안시성으로 갑니다.

가는 길에, 수령에 빠진 성민의 수레를 진흙투성이인 채 빼내주고 길 잃은 치매 할머니를 찾아 모셔가는 양만춘을 만납니다. 분명

수상한 면이 있지만, 양만춘은 사물을 받아들여 옆에서 대장기를 드는 임무를 부여합니다. 사물은 호시탐탐 양만춘을 해할 기회를 노립니다.

이런 누추한 곳까지 찾아주시니, 정말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성주. / 성안에 새 생명이 탄생했는데 안 올 수 없지. 아이의 이름은 지었나? / 늦봄이라 지었습니다. 그 이름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겠습니까? / 늦봄이면, 만춘인데? 하하하.

한밤중 그를 미행한 사물은, 성안 백성들이 그를 진정 존경하고 따르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성주는 어떤 인물입니까? 안시성 사람들에게 성주는, 어떤 인물입니까?

모두가 성주를, 안시성 그 자체로 생각하고 있지. 성주가 없는 안시성은, 안시성이 아니다.

‘성주’ 양만춘, 그러나 그의 실제 역할과 삶은 권력자가 아닌 마당쇠이자 아버지였습니다.

어이 사물, 네 단검을 보자. 좋은 칼이구나. 이걸로, 내 수염을 잘라라. 전투에 나가기 전에, 수염을 자르는 법이지. ...뭐하냐? 어서 잘라라.

드디어 당 대군이 안시성을 치러왔습니다. 결전을 앞둔 양만춘, 자신을 죽이러 온 사물에게 오히려 목을

말입니다. 칼을 든 사물은, 자신의 임무가 양만춘을 죽이는 일인지, 고구려를 살리는 일인지 변뇌합니다. 그런 사물의 변뇌를, 양만춘이 풀어줍니다.

지금은 하지 마라. 언제든지 기회는 있다. 그러니 지금은 하지 마라.

괜찮으십니까? 연개소문이 보낸 거 맞죠? 없애야 됩니다. 전투 중에 뒤에서 치기라도 하면...

저 아이도, 안시성 사람이다.

‘안시성 사람’, 그것이 양만춘이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자기 목을 따러 온 자일지언정 그는 안시성 사람, 고구려인입니다. 그 또한 양만춘이 목숨 바쳐 지켜야 할 안시성 사람이며, 사물 또한 자기 목숨을 바쳐 백성을 지킬 수 있는 안시성 사람입니다.

당나라 군대가 오고 있다고 얘기가 들려왔을 때, 모두들 나에게 물었다. 성주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나는, 싸울 거라고 말했다. 어찌겠냐? 내가 물러서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걸. 나는 무릎 꿇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항복이란 걸 배우지 못했다. 내가 배운 건,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한다는 거다. 어느 놈이 나의 소중한 것을 짓밟고 빼앗으려고 할 땐,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저 뒤를 돌아봐라. 안시성 사람들, 우리에게 소중한 건, 바로 저들이다. 저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자.

20만 대 5천, 어마어마한 대군을 눈앞에 둔 안시성의 군사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그러나 ‘숫자’를 초월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왕의 허락을 입고, 당 군사들은 정복욕을 불태우며 성을 약탈하고 욕망을 채우려 덤비지만, 고구려 군사들은 소중한 이들을 지키려는 사랑으로 자신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지켜냅니다. 나를 위한 걱정 앞에서는 떨게 되지만, 나의 소중한 것을 위해서는 한계를 뛰어넘는 용기와 능력이 드러납니다.

누구를 따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난 성주로서, 이 성을 지킬 뿐이다.

사물은 원병을 요청하기 위해 연개소문에게 돌아옵니다. 목숨을 바쳐 양만춘을 죽이겠다던 사물이, 목숨을 걸고 그와 성민들을 살리려 길을 갑니다.

그는 절대 반역자가 아닙니다. 그는 그저, 한 명의 고구려 사람일 뿐입니다. / 반역자를 고구려인이라고? 이제는 너도 항명하겠다는 것이냐? 너를 안시성에 보낸 것은 그때워 말을 듣고자 보낸 것이 아니었을 텐데. / 비록 갑파를 따르지는 않았으나, 그는 목숨을 내걸고 당군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가 왜 싸우겠습니까? 그것은 그가 고구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역자라 함에도, 성주와 성민들은 당군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건, 그들 또한 고구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들을 외면하십니까? 제발 안시성을 도와주십시오.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들도, 그들도 고구려입니다.

연개소문에게 충성의 의미는 자신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양만춘에게 충성은 백성을 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연개소문은, 백성을 구하러 안시성으로 떠납니다.

백성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과 헌신, 자신을 죽이러 온 이를 동지로 만들었고, 자신을 반역자라 여긴 이를 변화시켰으며, 백성과 나라를 구했습니다.

백성이 튼튼해야만 나라가 평안하다.

백성을 편안하게 기르는 일에 힘쓰도록 하라.

감사는 제 역할을 충실히 하여 백성들의 삶을 도와라.

백성을 사랑하고 기르는 일에 마음을 다하라.

백성을 구제 못 하는 죄는 진실로 나에게 있다.

— 세종대왕실록 —



교구장 동정

정의평화위원회 50주년 기념 미사 및 상반기 정기회의

일시: 8월 25일(화)
장소: CBCK

주교회의 사회주교위원회

일시: 8월 27일(목)
장소: CBCK

대상: 노인학교 봉사자, 노인사목관련 봉사자, 노인학교 담당 수도자

준비물: 필기도구, 미사 준비
문의: 사목국 055·249·7021~3

2020년 하반기 교구 성경공부 개강

·교구 내 본당 성경공부반 개강
일시: 9월 첫 주간(8월 31일~9월 4일)

장소: 각 본당
과목: 일반여정, 은빛여정

·교구청 성경공부반 개강

일시: 9월 1일(화)
장소: 교구청 1층 대강당
교재: 마태오복음
문의: 성경부 055·249·7025~6

3차 청년교리 연수

일시: 9월 5일(토) 14:00~6일(주일) 14: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055·221·1891

대상: 가톨릭 신앙을 가진 모든 청년
참가비: 1인 6만 원

주제: 교회의 시선으로 세상 바라보기
신청: 8월 30일(주일)까지,

선착순 20명 마감(전원 1인실)
문의: 청년부 055·249·7065,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청년부' 검색

▶ 위원회/기관/단체

정의평화위원회 위원 연수

일시: 8월 28일(금)~29일(토) 1박 2일
장소: 남해성당

문의: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055·261·8201

204차 ME주말 안내

일시: 9월 11일(금) 19:00~13일(주일) 17:30
2박 3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신청: 9월 4일(금)까지, 전화 및 문자로 신청

(문자 발송시 부부 이름과 연락처, 본당 기재)

문의: 한진우(미카엘)·문희숙(미카엘라) 부부
010·9150·8738, 010·6281·7859

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외국인 공동체 미사

영어 미사

창원: 주일 15:00/ 성산종합사회복지관

진주: 주일 14:30/ 칠암동성당

거제: 토요일 19:30/ 장평성당

베트남어 미사

창원: 주일 18:00/ 명서동성당

▶ 교구/본당

사제평의회

일시: 8월 25일(화) 10:30

장소: 교구청

전국 총대리 회의

일시: 8월 26일(수)~27일(목) 1박 2일

장소: CBCK

신학생 개학(광주가톨릭대학교)

일시: 8월 25일(화)

노인학교 봉사자 연수

일시: 8월 24일(월) 09:30~17: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도 011-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신세계 피부비뇨기과
피부질환 / 비뇨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
원장 김인구 베네딕도 055.757.9888~9

제주성지순례 3박4일 28만원
성지 7개, 신부님 동행,
주석 출발, 각 지역 공항 출발,
특2급 호텔
마르코 투어 010-5150-2625

더편한요양병원
수술 후 재활, 알코올, 교통사고 입원
장기요양, 노인성질환(치매·중풍)
(최상의 자연환경과 최신시설, 모든 병동 개별욕실)
이사장 한 정 진(오환)
055)606-7722, 010-9210-6860
위치: 마산진동 한백자동차운전학원 앞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포도잼, 무화과잼, 귤잼 410g
판매단위 - 날병 1박스 20개
2중 세트 10개 1박스
3중 세트 6개 1박스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문의 및 주문: 010-2652-0706



SM 수맥홍(홍)침대
주보 지참 교우 우대
거실 황토소파
평화방송·신문 광고 中
1588-5335

명례성지 소금 판매
소금판매 수익금 전액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쓰입니다.
합초 소금 200g 1만 원
신청: 055.391.1205

진해시니어클럽 자연습
천연비누 판매 주문 제조
비누 만들기 강좌
www.jhsc.or.kr
055.541.0126, 055.605.6297

초음파 백내장수술 전문
범안과 의원
창원시 용호동 73-62 정우상가 4층 1-1호
055)285-0307 www.wavelasek.co.kr
원장 범진선 다니엘





진주: 주일 12:30/ 칠암동성당
 통영: 2, 4주(토) 19:30/ 대건성당
 거제: 1, 3주(토) 19:30/ 국산공소

동티모르 미사

통영: 3주(토) 20:30/ 태평동성당
 거제: 3주(토) 22:30/ 국산공소
 진영: 3주(주일) 17:30/ 진영성당
 문의: 창원이주민센터 055·275·8203

수도회

나자렛예수수녀회 피정 및 교육

피정: 개인 또는 20명 이내 단체(말씀묵상 피정, 전례피정)
 교육: 첫영성체 교리 교육, 실천 교리 교육,
 전례봉사자 교육
 문의: 010·2116·4903

기 타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올레, 미사, 기도, 강의)
 1인 1실, 넓은 강당과 식당으로 거리두기 가능
 합니다.

일시: 8월 31일~9월 2일, 9월 8일~11일,
 9월 13일~15일, 9월 17일~20일(성지순례),
 10월 7일~10일

대상: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문의: 010·6351·4182

입양상담 및 미혼모상담 국내 입양 전문 기관

문의: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02·764·4741~3
 www.holyfac.or.kr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수 14:00~17:30, 19:30~21:00
 장소: 중동성당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
 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운철(요한 보스코) 신부
 정신보건전문상담사자격 보유
 (한국상담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자격)
 문의: 중동성당 사무실 055·298·4657

도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도박을 끊고 싶은 본인과 도박문제로 고통
 을 받고 있는 가족을 위한 익명의 모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단도박모임: www.dandobak.or.kr
 일시: 주일 17:00
 문의: 010·5686·1362

교구 가톨릭미술가협회 제24회 정기전

기간: 9월 2일(수)~8일(화)까지
 오픈식: 9월 2일(수) 18:00
 장소: 마산 3.15아트센터 제1전시실

▶신입회원 모집
 대상: 미술 작업하는 가톨릭 신자
 문의: 사무국장 010·9600·7994

교구 성폭력 피해 접수처

우편: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성폭력 피해 접수처 앞 (우 51727)
 E-mail: solace@cathms.or.kr
 문의: 055·249·7003/7007

유사종교 상담 및 피해사례 접수처

E-mail: samok3@cathms.or.kr
 문의: 사무국 055·242·6776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운동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2019. 12. 1.~ 2020. 11. 28.

제14회 마산교구 가톨릭문학 신인상 공모

- 자 격: 등단하지 않은 교구 천주교 신자
- 분 야: 시 5편 이상/ 수필 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2편/ 소설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1편/
 동화 30매 내외 1편
- 접수처: 천주교 마산교구 미디어국 (51727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 마 감: 9월 30일 도착분
- 당선자: 각 부문 교구장 상패와 상금 50만 원 (소설 70만 원)
- 기 타: 타지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 문학작품이어야 함, 접수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유의사항: 작품 말미에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성명, 세레명, 소속 본당을 명기할 것
 반드시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겹봉투에는 ‘가톨릭문학 신인상 응모’라고 명기할 것
 워드로 원고를 작성할 때에는 마지막 장에 원고지 매수를 기록할 것



우리들 속의 ‘사제’-현길언의 「사제와 제물」

김은정 엘리사벳 교수/ 경남대학교

줄거리로 볼 때 현길언의 「사제와 제물」은 노동 소설이다. 우리 사회의 산업 현장에서 벌어졌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노사 갈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제목처럼 이야기 속에는 사제가 등장한다. 진짜 가톨릭의 사제가 아니라 사제처럼 농성자들을 이끄는 인물이며, 이 인물의 고뇌와 행동이 이야기의 중심이다.

국내에서 대우가 가장 좋다고 평이 나 있는 세운그룹에서 노조 파업이 일어난다. 노조원들은 빌딩 한 층을 점거하고 물과 전기가 끊긴 상황에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농성을 이어간다. 선우백 선생이 농성장으로 들어간 것은 농성자들을 회유해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 달라는 사측의 요청에 의해서였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농성자들과 합류하고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사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농성 노조원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알리기 위해 현수막, 전단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 그러나 언론은 이미 회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고, 대부분 사람들은 농성 문제에 무관심하다. 그런 상황에 절망하며 ‘이채원’은 대중에게 호소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투신자살을 택한다.

이후 상황은 달라진 듯이 보인다. 그동안 별 반응을 보이지 않던 매스컴에서 사건을 집중 보도하고, 사람들은 그들의 농성에 관심을 보이게 되었으며, 회사측도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이 역시 약간의 시간이 지나자 원래의 무관심 상태로 돌아간다.

성서에는 제사장이 자기 자신을 바치거나 자기의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제물로 바쳐 제사를 지낸 이야기들이 많지요. 아브라함은 백 세에 얻은 외아들을 바쳤습니다. 그러한 제의식은 결국 예수에 와서 완성됩니다. 그는 자기 몸을 바쳐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가장 큰 제사를 치르게 되고 인류의 제사장이 됩니다. 그게 바로 사제의 길이지요. 우리 현실과는 아주 다릅니다. 우리들의 사제는 자신을 제물로 바칠 생각은 않고 다른 데서만, 그것도 약하고 힘없고 한스럽게 살아온 민중들에게만 요구합니다. 더구나 가증스러운 것은 그러한 폭력을 자행하면서도 민중이 역사의 주체 운운하면서 그들을 현혹하여 기꺼이 제물이 되기를 부추킨다는 사실입니다.

빌딩을 포위한 진압군들은 투신자살을 막기 위해 매트리스를 까는 등 강제 해산, 강제 연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대기 상태에 있었고, 두 명의 여성 농성원이 분신을 준비하고 정좌해 있는 상황. 농성장의 ‘사제’인 선우백 선생은 노조위원장 강철규가 한 “사제는 제물을 다른 곳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진실한 의미를 지닌다”는 말의 의미를 확실하게 깨닫는다.

그것은 사제는 없고 제물들만이 있는, 다시 말한다면, 모두가 사제였고 그 사제들은 바로 자신을 제물로 바쳐 제사를 드린, 바로 시제와 제물을 동시에 간직하고 있는 그 많은 젊은이들이 사는 우리 사회는 아주 밝게 빛날 것으로 확신했던 그 기억.

선우백은 창을 뛰어내릴 동작을 하면서 소리질렀다.
“이번에는 내 차례야. 당신들, 물러가지 않으면.”

.....

“이제부터 새로운 제사는 시작된다.”

나는 재차 확인하듯이 종얼거리면서 다시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가슴이 점점 넓어지면서 그렇게 까마득하게 보이던 거리가, 훌쩍 뛰어내려도 관촬을 만큼 아주 가깝게 다가왔다.

선우백 선생은 이미 4·19 혁명 시절에 ‘진정한 사제의 모습은 무엇인가’ 고민했었던 인물이다. 그는 그 질문에 대하여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는 답을 얻었고 마지막 순간 그에 따라 행동했다.

선우백 선생이 진짜 사제가 아니듯 이 작품이 ‘사제’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다. 당연히 ‘사제’는 희생되어 마땅하다는 이야기도 아니다. 죽음을 미화하는 것도 아니다. 이 소설은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다. 우리는 농성장에 내몰린 노동자들처럼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얼마나 ‘사제’의 마음으로 손을 내밀고 있을까. 제물이 된다는 것은 희생이자 사랑의 마음이다. 예수는 모든 것을 내어주고 스스로 제물이 되어 인류의 제사장이 되었다. 예수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힘없고 약한 이들을 도우세요. 당신들 모두가 ‘사제’가 되어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버리고 진정으로 남을 사랑하세요.